

[새신자예배 초대글]

하늘 사랑, 땅의 사랑

이 사랑은 넓습니다.
그 안에 들어가면 나를 찾기 힘들 만큼. .
이 사랑은 깊습니다.
내가 뛰어 내려도 끝이 닿지 않아 두려울 만큼. .
내가 가진 사랑으로는 다 알 수 없는
이 하늘의 사랑으로
이 땅의 모든 관계들을 초대합니다.

* 출처 : 온누리신문